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2014) 344-355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지식과 주권교육 중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

윤옥경** · 최종남***

A Study of American Geography Educators' Knowledge on Korea and Perception on Sovereignty Education*

Yoon, Okkyong** · Choi, Jongnam***

요약 : 이 연구는 미국 지리교육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영토관련 쟁점들을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과 주권교육의 중요성 및 주권교육이 추구하는 하위가치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했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들의 한국에 대한 지리 지식수준은 한국에 대한 문화 지식수준에 비해 높았고, 한국에 대한 교육 이수 경험과 한국 방문 경험이 이들의 한국에 대한 지리 및 문화 지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의 높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지리교육에서 주권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세부적으로 주권교육이 추구하는 하위 가치로서 영토의 경제적 가치와 지역갈등 해결능력 등 실질적, 실용적 요소보다는 애국심이나 세계시민교육을 중시한다. 또한, 이들의 주권교육에 대해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한편, 한국방문과 한국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이 이들의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리교육자를 교육함으로써 한국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관한 홍보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 홍보전략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주요어 : 미국 지리교육자, 인식, 지식, 주권교육, 영토쟁점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American geography educators' familiarity and knowledge of Korea, their perception on sovereignty education, and their knowledge on Korea's sovereignty issues using the survey conduc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NCGE) in the United States in 2010 and 2012. This study also analyzes how much these knowledge and perception influence on values of sovereignty education and Korea's sovereignty issues and further investigates proper educational approaches on territorial issues in Northeast Asia.

Knowledge on the geography of Korea of American geography educators is higher than their knowledge on Korean culture. Both experiences attending educational programs about Korea and visiting Korea further enhance their knowledge on the geography of Korea and Korean culture. They agree the importance of sovereignty education in geography education and believe that sovereignty education should promote students' sense of patriotism and encourage students to be global citizens who promote public interests. However, they value less on teaching on the economic value of their own country's territory and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territorial conflicts with other countries. American geography educators' perception on sovereignty education improves their familiarity with and knowledge of Korean territorial issues. This study identifies that providing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Korea and Korean territorial issues can maximize geography educators' accessibility to Korean territorial issues, regardless of their interest in territorial issues. These findings help Korean government develops better strategies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future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practices for Korean territorial issues.

Key Words : American Geography Educator, Perception, Knowledge, Sovereignty Education, Territorial Issues

* 이 논문은 2014년 2월 한국지역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장하였음.

**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Western Illinois University, Dept. of Geography)

1. 서 론

국가마다 지리교육에 대한 고유한 인식과 전통,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리교육과정은 해당 국가와 사회의 지리교육에 대한 관점 및 국가와 사회의 입장과 인식을 드러내는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외국의 지리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지리교과서의 내용을 탐구하여, 각종 국제적인 쟁점들과 이들 국가의 각종 지리 현상들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한걸음 나아가서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현실을 평가하고, 지리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지리교과서 내용 탐구와 지리교육과정 분석은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일부 영어권 국가들과 더불어 프랑스와 중국, 대만, 일본 등 동서양의 비영어권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외국 세계지리 교과서가 한국에 관해서 제시한 내용을 탐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국가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1] 이에, 외국 지리 교과서들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현황과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주로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이경한(2004)은 미국의 22개 주가 주정부 채택방식을 통해서 채택한 세계지리 교과서 중 일선 학교가 가장 많이 채택한 3개의 세계지리 교과서에 포함된 한국 관련 내용을 언어(단어, 구문, 스토리라인)와 삽화, 인물, 내용구성방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이 세계지리 교과서들이 서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진을 사용하거나, 통계나 동해 표기 오류 등의 사실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는 이 세계지리 교과서들에 기술된 한국에 관한 내용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주의적 관점과 더불어 미국 중심의 사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손용택·박선미(2002)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세계지리 교과서에 포함된 미국 관련 내용과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비친 한국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노혜정(2008)은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미국 세계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특징과 텍사스주가 채택한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포함된 한국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성신제(2012)는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포함된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 대한 서술내용의 기저에 깔린 동아시아 개별 국가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정치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미국 지리 교육에 대한 연구는 세계지리 교과서 내용탐구와 더불어 교육과정 전반의 변화기조를 조사하거나(서태열, 1993), 지리교육과정에 포함된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이간용, 2011) 등의 다양한 접근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 지리교육에서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의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고, 주변화되었다. 이에 세계지리 교과서들은 한국을 아시아의 한 작은 국가로서 미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세계지리 교과서들이 서술한 한국의 모습은 변화된 한국의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들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류와 왜곡은 저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제한적이고, 이러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한 결과이다. 또한 세계지리 교과서에 포함된 오류와 왜곡의 일부는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기술이 교과서 제작 국가의 지리교육의 목표와 교과서 저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영토 쟁점들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한국 및 한국의 영토관련 관련 쟁점들이 세계지리 교육의 주요 소재로서 미국 지리교육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미국 지리교육자가 한국에 대해 어떠한 지식과 인식을 가지며, 어떤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리교육을 통한 한국 및 한국 영토관련 쟁점들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2]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문제

1) 이론적 배경

(1) 주권 및 영토에 대한 교육: 세계시민교육의 이상과 현실

주권교육은 국가 주권과 국가 정체성을 가르치

는 교육으로 본다(윤옥경·최종남, 2011). 국가의 정체성은 영토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으로 이루어지고, 국가의 정체성 교육은 영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서 시작한다(서태열 등, 2007). 따라서 지리교육은 영토교육을 통하여 주권교육을 다룰 수 있다. 영토교육은 국민의 국가의식과 영역의식을 길러주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영토교육은 국토공간에 대한 단순히 배열된 사상과 그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으로 생각되거나, 단순히 국수주의적인 맹목적인 국토애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영토에 대한 건전한 지식위에 영토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교육이어야 한다. 올바른 영토교육은 영토를 생활공간으로 파악하며 총체적 경험의 장으로 바라보는 것이다(서태열 등, 2007). 이는 장소성의 관점에서 영토교육을 파악한 박선미(2010)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박선미(2010)는 영토가 영역성의 개념으로 해석될 때, 영토교육은 지리적 범주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문제가 됨을 지적하였다. 또 영토교육이 시민적 애국주의의 관점에서 개별국가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보다는 이것이 가지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교육영역에서 세계교육(Global Education)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정체성의 확립이 중요해졌다(Ferguson-Patrick, *et al*, 2012). 서태열(2004)은 변화와 유동성에 주목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정체성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며,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계속에서 창조와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화 시대의 개인은 로컬에서 내셔널을 넘어 글로벌에 이르는 각기 다른 차원의 공간에 중복적으로 소속되므로, 혼성적 자아를 중심으로 한 다원적인 정체성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지구적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는 세계적인 공공선의 지방적 집행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각 개인은 지구적 차원의 시민의식을 확립하고,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공간의 차원에 상관없이 저항하고 비판할 수 있는 태도를 수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의 다중적인 시민의 지위에서 교육자가 어떤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교육방법을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도 교육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Staeheli, 2011). 특히 지역 공동체와 국민국가가 다양하며 보다 세계화된 관계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 관계망간의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대되는 요즈음에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하는 시민성은 이전보다 확장되어야 하며, 교육의 목표는 지식 측면 뿐만 아니라 기능과 가치 측면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Tanner, 2007). 글로벌 시민성[3]은 기존의 경계화된 영역의 개념을 대체할 대안이며, 국가에 기초한 좁은 절대적 시민성의 개념과도 차별된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즉 글로벌 시민성은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개인적, 로컬적,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는 보다 넓은 보편적인 시민성과 글로벌 맥락에서의 비판적인 '성찰적 시민'의 모습을 요구한다(조철기, 2013).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다양한 가치관과 관점을 반영한 중립적인 교과서를 선택하고,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지리 교과서를 읽도록 지도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처럼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어의 사용 및 사례 소개에도 유의해야 한다(Wade, 2001).

미국 사회과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교육은 성립 초기부터 이 과목의 내용 구성의 큰 기둥이었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시민성 함양이라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미국의 세계교육은 다원론적 관점과 국익중심 관점에서 학생들을 교육한다(강선주, 2001). 그 예로, 미국의 Advanced Placement Human Geography 프로그램(APHG)은 최근의 글로벌 쟁점들에 대한 접근에서 유럽 접경지역의 발달과 유엔의 평화유지, 인권수호, 해양에 대한 국제법 적용 사례, 캐나다의 정치 쟁점, 중동 지역 등 기존의 근대 국가 체계의 영토 틀에서 벗어난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Murphy(2000)는 이러한 세계지리 교육방법이 결코 주권교육을 약화시키거나 국가의 영역을 무력화 혹은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국가 간 영토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글로벌 환경문제

가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지만, 문제해결은 국가단위로 각국이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세계지리 교육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지리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지리학의 주요 개념들과 원리들을 교육시키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세계지리 교육과정은 세계 여러 지역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보다 서구와 강대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리교과서들은 중립적인 서술구조보다는 우리 문화 중심의 서술구조를 바탕으로 내용을 기술하는 경향이 깊다. 즉 세계지리 교육이 국제이해교육을 선도하고,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경한, 2010), 세계지리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과 우리나라 세계지리 교과서 및 교육 현실 간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2) 동북아 영토관련 쟁점들과 영토 교육

우리나라의 사회과교육은 동북아시아의 영토 관련 쟁점들을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지리, 국제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며, 여타 교과목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서태열 등, 2007). 동북아시아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국가 간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영토와 장소가 존재하며, 이러한 쟁점들이 부각될 때마다 언론보도의 중심 내용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김정인(2010)은 동북아시아의 영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회과 교과서의 저술은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과거사 문제 극복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시원(2008)은 국제적인 현안 해결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사회과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문제해결의 기반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동북아의 영토관련 분쟁을 사회과 교육에서 다룰 때 관련국들이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민족주의적인 접근보다는 민주주의 가치와 실천을 공유하는 동북아시아 공동체 교육과 시민교육을 확충하여 민족주의 교육과 국제이해교육간의 균형을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과 교육이 동북아시아에는 군사력, 경제력의 물질적 차원의 질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각국 시민들의 이해와 교류에 기반한 상호주관성을 통하여 형성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의미'로서의 질서도 존재함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력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이지만 민족국가와 국민국가의 주권수호라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과교육이 현실의 사실적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의 영토관련 쟁점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사회과교육이 지향해야할 목표는 현 상태를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영토관련 쟁점들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기르고, 나아가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미(2009)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 학생과 교사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에서 일본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저항적 민족주의로 대처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교육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감정적 민족주의를 가르치는 것 보다는 합리적 비판과 보편적인 가치와 인류애에 기반한 시민적 애국심을 가진 세계시민을 기르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호엽(2011)은 글로벌시대의 영토교육이 학생들에게 배타적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을 함양하고 초국가적 주체 형성을 위한 영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배균(2013)은 기존의 영토교육의 틀을 벗어나, 국가라는 공간적 스케일을 중심으로 한 지리교육을 재구성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대안적 '동아시아 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조사하고, 이들의 주권교육(education about national sovereignty)

과 동북아시아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관한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세계지리교육을 통하여 한국 및 한국 영토관련 쟁점들을 외국에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영토관련 교육을 포함한 세계지리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지 여부도 탐색하고자 한다.

미국의 세계지리 교과서는 한국을 '산업'과 관련된 주제의 사례로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하나인 신흥공업국으로 표현하거나,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지어 다소 불안정한 국가로 기술한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지리 교과서에 재현된 한국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지리교육자가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그 국가에 대한 경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경험에 따른 한국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정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주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애국심과 경제적 가치, 지역갈등 해결능력, 세계시민교육의 네 차원을 설정하였다. 국가주권과 정체성에 관한 교육 즉 주권교육은 학생들의 애국심을 신장시키고, 영토의 자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자국영토의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시키고, 인접국가와의 영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학생들을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히 영토주권을 이해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수단을 넘어서, 그들이 세계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교육으로 바라보아야 한다(윤옥경·최종남, 2011).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 지리교육자의 주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그들이 특히 주권교육에서 애국심과 주권의식, 영토의 경제적 가치, 타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시민교육 중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미국 지리교육자는 동북아시아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따라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지리교육자가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여 동북아시아 영토관련 쟁점들에 이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쟁점들에 대해서 중립적이며 객관적 태도를 보이거나 무관심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영토 쟁점들을 지리교육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국 지리교육자가 주권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세계화 시대에 주권교육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떤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지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 지리교육에서 한국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이 어떤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과 주권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에 대한 지식과 인식수준은 어떠하며, 연령별과 성별, 한국 방문 경험 유무, 한국관련 교육 이수 경험 유무에 따라 이러한 지식과 인식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미국 지리교육자가 주권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미국 지리교육자의 주권교육 중요성 인식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3.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에 사용되어진 자료는 2010년과 2012년에 열린 미국지리교육학회(The National Council of Geographic Education: NCGE)와 2010년 전미지리학회(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West-Lake Division의 연례회의들에 참석한 미국 내 대학 및 중등학교의 지리학 관련 교수 및 교사들 127명의 응답결과이다. 설문조사는 무작위로 이루어졌지만, 설문조사 시 동일인이 설문조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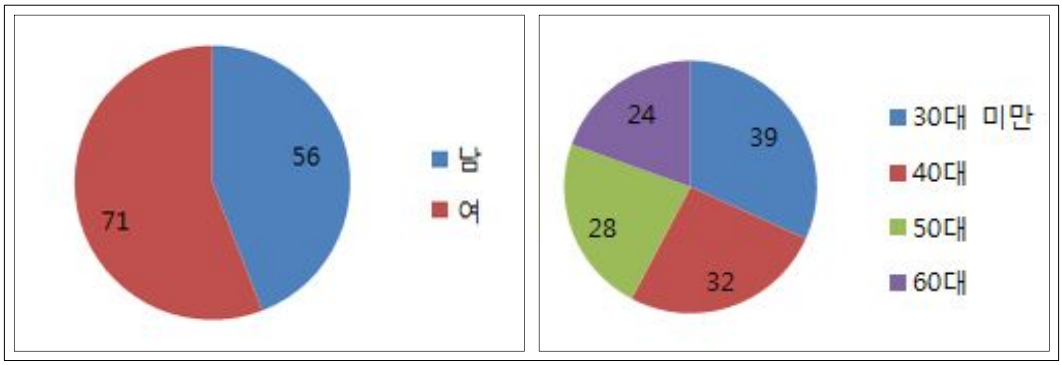

그림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a) 성별(n=127)와 (b) 교육경력(n=123)

중복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자들이 제시된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은 설문에 응답한 미국 지리교육자의 성별과 연령분포를 보여준다. 127명의 설문 응답자는 56명의 남자와 71명의 여자로 이루어졌고, 30대 미만(39명)과 40대(32명), 50대(28명), 60대(24명) 등으로 연령대별로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전체 응답자 중, 한국 방문 유경험자는 19명이고, 108명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없다. 또한 전체 응답자중 38명이 한국과 관련한 각종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나머지 88명은 이러한 경험이 없다.

2) 측정 도구 및 자료분석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한국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미국 지리교육자의 주권교육의 중요성의 정도, 한국 및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지식은 지리지식과 문화지식으로 구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였다. 지리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항목은 지리적 위치와 지형, 기후, 도시, 인구, 천연자원 등이며, 문화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한국 상품과 한국 음식, 대중문화, 한국어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 지리교육자의 주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이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애국심과 경제적 가치, 지역갈등 해결 능력, 세계시민교육 등 주권교육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은 세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는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Japan's territorial claim over Dokdo)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동해지명병기(the concurrent use of "East Sea" and "Sea of Japan")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쟁점들이 일제 식민주의의 잔재라고 생각하는가?' 등이다. 주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을 추출하고, 일원변량분석과 t검정, 선형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해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1)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지식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지리지식과 문화지식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미국 지리교육자는 한국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리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지리교육자들은 일부 항목에서 제한된 지식과 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지리지식 수준을 묻는 항목들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가진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지형, 기후 등에

표 1.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지리지식 (n=125)

지리지식	평균(표준편차)	Wilks 람다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F
지리적 위치	4.56(.81)	5	121	72.12***
지형	3.55(1.09)			
기후	3.56(.98)			
도시	3.08(.95)			
인구	2.99(1.05)			
천연자원	2.61(1.03)			

*** $p<.001$

대한 지식수준이 한국의 도시나 인구, 천연자원에 대한 지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미국 지리교재에서 지리적 위치와 지형, 기후 등은 세계 전체 및 아시아에서의 위치와 자연환경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지만, 도시와 인구, 자원 등 한국의 사회와 경제 관련 지식은 한국을 독립적으로 다룰 때 얻을 수 있는 지식일 뿐더러, 미국 세계지리교재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사회 경제 관련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추정된다($F(5,121)=72.12$, $p<.001$).

미국 대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조사한 김민성·조성욱(2011)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정치적 상황과 분단 현실 등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부정확한 지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 문화 발전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에 기반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로 인식하는데 이는 미국의 세계지리 교재가 한국을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동북아시아의 일부로서 다루거나 혹은 특정 주제의 내용으로만 다루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상품(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미국 지리교육자의 지식 수준은 높다. 이 결과는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광범위한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반면에, 한국음식(불고기, 비빔밥, 김치 등)과 대중문화(음악, 예술, 영화, 스포츠 등) 등의 한국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지 않고, 특히 한국어에 대한 지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들의 한국에 대한 문화지식 중 각 하위항목에 대한 지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F(3,123)=59.56$, $p<.001$).

이 연구는 연령별과 성별, 한국 방문 경험 유무, 한국관련 교육 이수 경험 유무가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지리지식과 문화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에 대한 지리지식과 문화지식 수준은 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 방문 경험과 한국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의 유무에 따라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표 2.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문화지식 (n=125)

문화지식	평균(표준편차)	Wilks 람다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F
한국상품	3.23(1.08)	3	123	59.56***
한국음식	2.83(1.34)			
대중문화	2.40(1.10)			
한국어	1.88(1.03)			

*** $p<.001$

표 3.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지식 차이

	변인(n)	지리지식 평균(표준편차)	F	문화지식 평균(표준편차)	F
연령	30대 미만(39)	17.80(3.28)	0.47	11.00(3.53)	0.73
	40대(32)	17.25(4.35)		10.38(3.65)	
	50대(28)	18.25(4.12)		10.25(4.05)	
	60대(24)	18.29(3.53)		9.63(3.24)	
	변인(n)	지리지식 평균(표준편차)	t	문화지식 평균(표준편차)	t
성별	남(56)	17.95(3.74)	0.49	9.73(3.23)	−1.72
	여(71)	17.61(3.96)		10.83(3.81)	
한국방문경험	유(19)	20.32(3.58)	3.26***	13.32(3.59)	4.15***
	무(108)	17.31(3.73)		9.82(3.34)	
한국교육 이수경험	유(38)	19.00(3.86)	2.36*	12.05(3.78)	3.59***
	무(88)	17.27(3.73)		9.68(3.23)	

* $p<.05$, *** $p<.001$

지리지식과 문화지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표 3). 이러한 결과는 지리지식과 문화지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보편적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과 한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미국 지리교육자의 주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주권은 국민과 영토와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의 하나로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성과 독립성, 절대의 권력을 가리킨다. 국가는 공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가 존립의 근거인 주권을 교육시키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권교육은 지리교육의 중요한 교육요소이며, 사회과교육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교육내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리교육을 포함한 사회과교육은 영토 및 영역을 중심으로 주권교육을 시행한다. 최근에는 인접한 국가와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가지는 국가 간의 과거사에 대한 평가와 미래지향적 국제관계가 주권교육의 교육소재로 활용된다.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미국에서도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권교육은 지리교육의 중요한 교육요소이다. 이 연구는 미국 지리교육자에게 주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였고, 주권교육의 어떤 하위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했다. 이 연구는 주권교육이 추구하는 하위 요소로서, 애국심의 고취와 국토의 경제적 가치 인식, 분쟁지역 간 갈등 해결 능력 함양, 세계시민교육 등을 상정했다. 미국 지리교육자는 주권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표 4).

표 4. 미국 지리교육자의 주권교육의 중요성

(n=122)

주권교육의 중요성 인식 평균(표준편차)
4.02(.91)

특히, 미국 지리교사들이 주권교육이 지리교육에서 중요한 이유가 주권교육이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국토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학생들의 지역갈등 해결능력을 높이며,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높이기 때문이라 답했다(F=12.62, $p<.001$). 주권교육의

표 5. 애국심과 경제적 가치, 지역갈등 해결능력, 세계시민교육이 미국 지리교육자의 주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116)

변 수	B(표준오차)	β	R^2	F
상수	1.35(.40)			
애국심	.34(.08)	.36***		
경제적 가치	.17(.10)	.20	.31	12.62***
지역갈등 해결능력	−.11(.10)	−.13		
세계시민교육	.26(.10)	.28*		

* $p<.05$, *** $p<.001$

중요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주권교육의 하위요소는 애국심(β=.36, $p<.001$)이며, 그 다음으로는 세계시민교육(β=.28, $p<.05$)이다. 그리고 이 두 하위요소의 주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력은 31%(R^2=0.31)로 나타났다(표 5). 즉 애국심의 고취나 세계시민 교육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주권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영토의 경제적 가치, 지역갈등 해결능력 등은 실질적, 실용적 요소로서 의미가 있지만 교육의 차원에서는 심성적 측면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3)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영토관련 3가지 쟁점들에 대한 지식

이 연구는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동해지명 병기의 인식 여부를 질문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토관련 쟁점들이 부각되는 배경이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국 지리교육자들이 파악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영토관련 3가지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각 지식수준은 1에서 5까지의 합)은 7.11(3.43)로 세 항목 지식수준의 합의 범위가 3에서 15점 사이를 고려해 볼 때,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다(표 6).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대학교육과 중고등 교육에 사용되는 세계지리 교재가 동해나 독도와 관련한 영토관련 쟁점들과 지명쟁점들을 소개하지 않는 점과 교재에 사용된 지도가 동해지명을 병기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이 미국 지리교육자들의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의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4)]

표 6.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

(n=116)

한국 영토 쟁점 지식 평균(표준편차)
7.11(3.43)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의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과 성별, 한국 방문 경험 유무, 한국관련 교육 이수 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했다.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성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 반면, 한국 방문 경험 유무(t=3.82, $p<.001$)와 한국관련 교육 이수 경험 유무(t=3.72, $p<.001$)는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거나 한국관련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지리교육자가 이러한 경험이 없는 지리교육자보다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다.

미국 지리교육자의 주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해 지식수준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0, $p<.05$)를 보인다(표 8). 따라서, 한국의 영토 및 지명관련 쟁점들을 미국의 지리교과의 주권관련 교육에 활용할 수

표 7.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 차이

	변인(n)	한국 영토 쟁점 지식 평균(표준편차)	F
연령	30대 미만(37)	6.41(3.20)	1.52
	40대(29)	7.65(3.17)	
	50대(26)	6.46(3.14)	
	60대(22)	7.86(3.75)	
	변인(n)	한국 영토 쟁점 지식 평균(표준편차)	t
성별	남(51)	7.64(3.34)	1.81
	여(65)	6.54(3.21)	
한국방문경험	유(19)	9.53(3.66)	3.82***
	무(97)	6.54(3.01)	
한국교육이수	유(36)	8.64(3.74)	3.72***
	무(80)	6.30(2.82)	

*** $p<.001$

있는 사례로서 개발한다면, 주권교육에 관심이 많은 미국 지리교육자에게 우리나라의 영토 및 지명 관련 쟁점들을 용이하게 홍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4)]

표 8. 주권교육 중요성 인식과 한국 영토 쟁점 지식 간 상관관계

(n=112)

	주권교육의 중요성 인식
한국 영토 쟁점 지식	.20*

* $p<.05$

5. 논의 및 결론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지리지식의 수준은 높다. 하지만 주로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 관련한 지식수준이 높고, 세세하게 국가 수준으로 파악해야 할 정보 및 문화와 관련된 부분의 지식 수준은 낮다. 그러나 생활속에서 접하고 사용하는 한국산 상품에 대한 지식은 여타 문화적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나 한국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의 여부가 한국에 대한 지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리교육자에게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한국을 알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지리교육자는 주권교육을 지리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주권교육의 하위 가치 중 애국심이나 세계시민교육을 중시한다. 즉 주권을 통한 영토의 경제적 가치, 지역갈등 해결능력 등 실질적이거나 실용적 측면보다 주권의 심성적 측면을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시한다. 미국 지리교육자는 한국 영토 쟁점들에 대해 많은 지식수준이 높지 않다. 그러나 주권교육에 대해 중요성의 인식수준이 높은 지리교육자일수록 한국 영토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 그리고 한국 방문 경험과 한국에 대한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미국 지리교육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한국의 영토 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 이 결과는 한국 관련 교육이나 방문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한국 바로 알리기 및 독도와 동해 관련 쟁점의 홍보 전략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지리교육은 한국을 하나의 독립적인 세부 교과과정 단위로 상세히 다루지 않고, 한국에 관한 교육에 배정된 분량과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이 세계시민교육적 차원에서 미국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미국 지리

교육자는 주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들의 주권교육의 인식 수준은 이들의 한국의 영토 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미국 지리교육자는 주권교육이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학생들을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학생들에게 영토 관련 쟁점들을 교육하면서, 학생들을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쳐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일부 미국 지리교육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써,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을 직접 조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지리교과서의 세부 내용과 한국에 대한 수업 실행 사례를 조사하거나, 설문조사에 질적 분석요소를 추가하여 분석하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지리교육자의 일본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과 일본에 인식과 지식 및 양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관한 이들의 지식을 보다 상세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각 주별 교육과정 운영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므로, 각 주별 지리교육자 간의 한국과 한국의 영토관련 지식과 인식에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각 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거주자와 이민자의 수와 비율에 따라서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

1) 외국 교과서의 한국에 대한 기술은 국가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국가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
2) 윤옥경·최종남(2011)은 미국 지리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동해와 독도 지명의 효과적인 해외 홍보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3) 논문의 저자에 따라서 세계시민성, 글로벌 시민성 등 용어의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연구에서는 원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4) 이경한(2004)은 당시 미국에서 체택율이 높았던 세계지리 교과서 3종에 대한 한국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지도에서 동해 해역에 대해 일본해가 표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세계지리 교과서에서의 동해지명병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지리 교재를 기반으로 한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5) 2013년 미국 지리교육협회(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NCGE) 연차대회에서 개최된 워크숍(주제: Selecting Content and Materials for Study of Korean Peninsula)에서는 18개의 미국 지리교육 지침(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SOCIAL STUDIES for GEOGRAPHY) 중 Standard 1, Standard 2, Standard 6을 적용하여 미국 지리교사가 제작한 교수학습과정안이 발표되었으며, 교수학습 소재로 '독도'에 대한 내용이 도입되었다.
   Standard 1: How to use maps and other geographic representations, geospatial technologies, and spatial thinking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information.
   Standard 2: How to use mental maps to organize information about people, places, and environments in a spatial context.
   Standard 6: How culture and experience influence people's perceptions of places and regions.

문 헌

강 량, 2006, 한일 독도영유권 논쟁과 미국의 역할, 역사와현실 60, 3-16.

강선주, 2001, 미국의 세계교육을 둘러싼 논쟁 - 다원론적 관점과 국익중심 관점-, 미국사연구, 14, 157-181.

김민성·조성욱, 2011, 미국 대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텍사스주 대학생을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1), 105-118.

김정인, 2010, 「동아시아사」 서술에서 영토 문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8, 75-95.

김진희·허영식, 2013,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담론과 함의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40(3), 155-181.

남호엽, 2011, 글로벌 시대 지정학 비전과 영토교육의 재개념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3), 371-379.

노혜정, 2008,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세계

지리 교과서 다시 읽기: 미국 세계 지리 교과서 속의 "한국", 대한지리학회지, 43(1), 154-169.
박배균, 2013, 영토교육 비판과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리교육의 방향성 모색,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44, 163-198.
박선미, 2009, 독도교육의 방향: 민족주의로부터 시민적 애국주의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2), 163-176.
박선미, 2010, 탈영토화시대의 영토교육 방향 -우리나라 교사와 학생 대상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2), 23-36.
서태열, 1993, 1980년대 이후 미국 지리교육 부흥 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지리학, 지리교육, 그리고 교육정책의 관계, 지리학 28(2), 163-178.
서태열, 2004, 세계화, 국가정체성 그리고 지역정체성과 사회과교육, 사회과교육, 43(4), 5-29.
서태열·김혜숙·윤옥경, 2007, 독도 및 울릉도 관련 영토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성신제, 2012,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재현된 동아시아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7 (2), 297-309.
손용택·박선미, 2002, 한국 사회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비친 미국,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비친 한국, 사회과교육 41(1), 5-35.
윤옥경·최종남, 2011, 동해와 독도 지명의 효과적인 해외 홍보를 위한 기초 연구, 영토해양연구, 2, 86-103.
이간용, 2011, 미국 초등 지리 교육의 실천적 특성 고찰 -캘리포니아 주의 두 초등학교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1), 33-48.
이경한, 2004,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의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12(3), 379-394.
이경한, 2010, 국제이해교육의 매개체로서 지리교과서의 서술구조 및 내용 분석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지역마다 다른 문화』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3), 297-307.
조철기, 2013, 글로벌 시민성교육과 지리교육의 관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1), 162-180.
진시원, 2008, 동북아 영토분쟁, 중등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간도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2), 435-454.
한희경, 2011, 비판적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계지리 내용의 재구성 방안 -사고의 매개로서 "경계 지역"과 지중해 지역의 사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23-141.
Ferguson-Patrick, K., Macqueen, S., Reynolds, R., 2012, Global education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Views from pre-service teachers, Australi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Education (AARE). 10 Australi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Education. AARE Secretariat, December 2012 (ERIC 전문).
Murphy, A.B., 2000, Political organization of space in Advanced Placement Human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99(3/4), 120-131
Staeheli, L. A., 2011, Political geography: Where's citizenship?,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5(3), 393-400.
Tanner, J., 2007, Global citizenship, in Hicks, D. and Holden, C.(eds.), *Teaching Global Dimension*, Routledge, 150-160.
Wade, R., 2001, global citizenship, in Lambert, D., and Machon, P.(eds.), *Citizenship through Secondary Geography*, Routledge Falmer, 161-181.
미국지리학회 세계 지리 교육 센터 웹사이트 http://www.aag.org/cgge
미국 지리교육 지침 http://education.nationalgeographic.com/education/standards/national-geography-standards/?ar_a=1

• **교신** : 최종남(웨스턴 일리노이 대학교 지리학과)
Correspondence : Dept. of Geography, Western Illinois University, 1 University Circle, Macomb, IL 61455 USA, j-choi1@wiu.edu, 전화: 1-309-298-2635/팩스: 1-309-298-3003

(접수: 2014.05.19, 수정: 2014.06.10, 채택: 2014.07.05)